

vol.38

December, 2019

모니터링 리포트

특집

- 14회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수상작 특집

포커스

- 언론모니터링
2019년, 10대 중앙 일간지 연간 분석
- 발달장애인 미술강사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행복 찾고 청년 일자리 찾고

이슈포착

-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 위한 패널토론
: 김동호 대표, 김동기 교수, 문지영 교수, 김동범 사무총장, 윤삼호 소장

포럼은 지금

-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모니터링 리포트 | vol.38 December, 2019

시단법인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정책모니터링센터



시단법인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정책모니터링센터



“자폐증: 가족사진 찍기 싫어하던 자폐증 소년... 공룡 옷을 입자 촬영이 즐거워졌다”
 (BBC NEWS 코리아, 2018. 9. 30)

자폐성 장애가 있는 리바이(당시 8세)가 좋아하는 공룡 옷을 입고 사촌인 롤라와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훗날 가족들은 이 사진에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보태며 즐거워할 것이다. 가족사진 촬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미소를 사진에 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사진 촬영이 불편한 무언가를 강요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촬영은 즐겁지 않고 미소는 억지스럽기 마련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족사진 촬영에 적지 않은 노력과 수고를 경험했을 법하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요구받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리바이의 엄마 사만다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진을 찍었던 날은 달랐다. 리바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촬영을 즐겼다. 늘 두 시간을 넘겼던 촬영도 20분 만에 끝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리바이가 가족사진 컨셉과 자기 의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족들이 장애를 강조(드러내는)하는 리바이의 사고와 행동을 장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해 촬영 때 입을 의상을 벌써 고민하고 있을 공룡 옷 속 리바이의 기대에 찬 표정이 그려진다.

Contents

2019 겨울 | Winter

- 02 **편집자 편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기해년(己亥年)을 뒤로하며
- 04 **칼럼**
사회적 책임의 시대,
가치 창출 이전에 준수 노력을
- 06 **의정론보기**
장애등급제 폐지,
분주한 광역시도 의회
- 12 **특집**
14회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수상작 특집
- 20 **포커스 1**
언론모니터링
2019년, 10대 중앙 일간지 연간 분석
- 26 **포커스 2**
발달장애인 미술강사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행복 찾고 청년 일자리 찾고
- 30 **이슈포착 1**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 위한 패널토론
- 44 **이슈포착 2**
타입뱅크 : 탈시설 장애인의 이웃 만들기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다
- 52 **영화평**
예술가 발달장애인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러의 탄생
- 58 **포럼은 지금**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최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응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 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물음표와느낌표 02) 822-0772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기해년(己亥年)을 뒤로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를 절반은 접은 채로, 노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속 장애인의 대상화를 우려하며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동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사회서비스원이 품고 있는 뇌관을 걱정스럽게 바라봐왔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망은 아니었다는 것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앞두고 드는 생각입니다.

제38호 모니터링 리포트는 여전히 기대가 담긴 이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슈포착1>에서는 12월에 있었던 <장애 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패널 토론회>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인권포럼은 '장애 주류화' 이슈를 성 주류화 및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토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 가능성 및 전략 과제를 모색해 왔습니다. 더 진전된 논의라기보다는 그간의 성과와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타임뱅크(Time Bank) 이슈를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해 논의한 토론회 결과물을 <이슈포착2>에 담았습니다. '결핍'이 아닌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II센터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커스1>에는 올해 국내 10대 일간지가 다루어 온 장애관련 기사를 양, 보도지면, 다루고 있는 장애유형, 기사 내용을 계량화해 분석하였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장애 이슈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적 분석 내용은 2019년 언론모니터링 보고서(내년 2월 초 공개 예정)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포럼은 올해 <장애인아카데미>, <도와지>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행복 찾고, 청년 일자리 찾고"를 주제로 발달장애인 전문 미술 강사 양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커스2>에 담았습니다.

<의정돋보기>에서는 올해 장애등급제가 단순화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광역의회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작 활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의정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국 선임연구원은 개인맞춤형 정책과 제도 수립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병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고 지자체는 그 중심에서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미례 감독의 <영화평>은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녹턴 Nocturne>의 주인공 두 명의 음악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화 이야기'가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류하는 이들 간 서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독자님들의 생각이 자못 궁금해집니다.

<특집>은 2019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 작품과 심사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최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이튿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소감에 담겼던 수상자들의 따뜻한 시선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를 권력 암투나 일삼는 정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 발전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권도 법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정치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법과 제도, 인권, 더 나아가 사회발전으로까지 확대할 때, 비로소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2019년 12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사회적 책임의 시대, 사회적 가치 창출 이전에 준수 노력을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다. 그게 뭐라고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더러 있다. 그게 뭐냐면 국가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제부흥과 개발, 효율성에만 집착해 무시하거나 뒷순위로 미루어두었던 인권, 평화, 노동, 환경, 공정한 분배, 투명성,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갑자기 왜냐고 묻는 분이 있다면, 유엔의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세계인의 행동 목표(Agenda 21, 1992),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가 그것이다. 무려 50년 전부터 국제사회가 논의해온 핵심 이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침범이랄 수 있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상대국에 사회적 가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즉 국가 경쟁력과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

기업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유럽연합(EU)에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싶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싶다면 그 기업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되어 있고, 인권과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 기업이 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다. 한국은 왜 이제야 난리냐고? 위에서 언급한 <Agenda 21>의 국내 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0)가 설치되었다. 이를 국가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년)도 제정하였다. 보수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녹색성장과 경제민주화 이슈를 기억할 것이다. 용어가 다를 뿐 같은 말이다.

단기성과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기득권의 저항에 직면했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도 포용성장의 도구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생활을 지원하

는 것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인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조치다. 포용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개발과정에 인권을 포괄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 노동, 환경, 평등, 투명성 모두가 인권 이슈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해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보고받고 심의·권고하는 메커니즘은 회원국의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내 이행 조치의 대표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평가대상이 되면 좋든 싫든, 동의하든 아니든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 우선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반영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적을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업무를 인권보호와 증진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 재정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어필해야 한다. 3점의 가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반영해 공공기관운영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경영을 제도화 한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정책과 이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제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개선한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영향력 범위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예방·완화·구제 조치에 일정 기여를 할 책임도 있다. 국가는 대주주로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법적 영향력 범위 내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적·비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엔의 비난을 감수해야한다. 대기업은 가치사슬 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시선도 국가의 인권 존중·보호·충족 의무에 닿아야 한다. 장애인 단체도 자유롭지 않다. 기관운영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이전에 그것을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장애등급제 폐지, 분주한 광역시도 의회

한동국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장애등급제가 공급자 중심의 정책개발·예산집행 체계였다면, 장애인 개인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따라서 17개 광역시·도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재정비 중이다.

광역시의회의 의원들은 의정발언을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내용과 대상 확대 등, 준비현황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질의하였다. 광역시·도 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가운데 25건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질의 발언이었다. 25건 중 13건은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질의, 3건은 장애인 서비스체계 전환준비 질의, 3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제공에 대한 질의였다. 6건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단순질의였다.

발언 내용을 보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 정책예산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요구, 장애인 서비스 체계 전환에 대한 준비현황 질의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광역시·도 의회는 장애계와 협조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직접지불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강화 등,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개인맞춤형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시의회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때다.

2019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9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장애인 콜택시 관련 질의)

※ 강성의 의원은 강위원으로,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현국장으로 표기한다.

강의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업무보고 18페이지 하고 5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특별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장 : 저희들이 12급 기준으로 해서 7876명인데 법정 대상자가 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위원 : 그러니까요, 25% 증가 예정…….

현국장 : 그래서 기준도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법정 대수도 지금 40대인데 6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현국장 : 그래서 현재 우리가 41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5대 구입하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강위원 : 언제 추경예요?

현국장 : 이번 3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안 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15대를 확보하고, 임차 택시도 올해 2대를 추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면 임차 택시를 더 늘리는…….

강위원 : "수요가 있다면"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보면 지금 제주도의 평균 이용 현황이 전국에서 1위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분들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는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거나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차 택시 같은 경우 현재 몇 대입니까?

현국장 : 35대.

강위원 : 그런데 그것을 달랑 2대 더 하겠다. 2019년에. 그리고 2020년까지 15대 하겠다. 이것은 저는 그냥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또 생각해 봅시다 이런 태도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국장 : 그래서 우선은 올해 더 당겨서 15대를 확충하고, 저희들은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올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계속 요구했지만 리프트 탑재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그 외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을 유도하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대상자에 맞게 수단이 배치되어서 이용되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올해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필히 운영하는 기관에서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국장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질의)**

※ 최종현 위원은 최위원으로,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진이사로 표기한다.

최위원 : 누리 센터의 기능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 기관·시설들 거기 입주해 있죠?

진이사 : 네.

최위원 : “향후 계획,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지원 상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보건복지 지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향후에 어떤 식의 정책을 하 실 건지, 여기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진이사 : 일단 간담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기관 입주 단체들하고, 그리고 그쪽이 증축을 통해서 단체들이 좀 더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위원 : 그럼 센터에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직원들이 따로 상주해 계신가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직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인력 현황이 있나요?

진이사 :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은 했고요, 내년에는 당사자와 가족, 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위원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중요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서비스 체계 전환에 대한 질의)**

※ 한근석 위원은 한위원으로, 보건복지 정찬 국장은 정국장으로 표기한다.

한위원 : 어떤 의미는 현재 장애 관련되어서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장애정도에 따라서 중증, 경증으로 구분해가지고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된다고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 1~6등급 제도가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금으로 말하면 1급 ~ 3급이죠. 이것을 중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등급 경증으로 구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하에서는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이 등급에 따라 일률적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국장 : 큰 틀에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급부터 6등급이, 3등급까지 중증 그다음에 경증 나누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폐지에 따른 종합적인 그런 기준,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위원 : 초기에 상담을 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조사에 의해서 이 장애인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말도 어려워요, 지금 제가 공부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했던 사항을 그냥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복지국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해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정국장 : 예, 감사합니다.

한위원 :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는 읍면동 장애인 분들의 가족이 등록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의학적인 판단을 또 받습니다. 지금처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지금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증이나 중증이나, 1등급이나 5등급이나 6등급이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경증, 중증으로 구분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욕구조사를 하게 돼요,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활동보조 등을 국민연금공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의뢰서를 발급을 해 줘요. 그러면 읍면동 장애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의뢰서가.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받은 결과를 국민연금 공단에 다시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이것이 뭔 말인가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

체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등급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분이 2급인데 못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역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국장 : 예, 고맙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 :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도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것은 가짜 폐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올 예산이 작년 대비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기준으로 볼 때는 3000억 원, 4000억 원 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쳐다보면 분명히 올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예산은 늘린다고 3000억 원,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최저임금, 물론 모든 부분에 발생되는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의 임금인상분 또 서비스 신청한 분이 7만 1000명에서 8만 1000명으로 1만 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 서비스 지원 금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폐지다,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한다면 예산을 증액했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반발을 하고 이것은 가짜 폐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제가 다른 사항도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해도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정해진 서비스를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 및 전문적인 사례관리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 복지 욕구조사 후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원되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대비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이나? 장애인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면서 사례를 관리할 전문적인 담당인력도 확보를 해야 된다. 담당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이런저런 사업을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정부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연계형 협력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민간기관들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어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민간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수요증가와 기능조정 등에 대비한 조직구조 개편과 사업평가 방향 전환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역할하고 대비 과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국장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장 :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공부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과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19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장애인의 눈으로 본” 언론 모니터링



01

10대 종합일간지의 장애관련기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전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

02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리포트 제공을 통해 언론사의 장애 감수성 제고 및 표현법 시정

03

'이 달의 좋은기사, 칼럼, 사진' 공개를 통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장애관련 보도 유도

04

매월 전 달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분석한 언론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지면신문·인터넷신문·언론 협회와 단체·정부기관·장애인단체 등 약 1,000곳에 리포트 발송





www.udcontest.com

UNIVERSAL
DESIGN

2019년 제14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제14회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심사평 실용성과 생산성 높은 작품 선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단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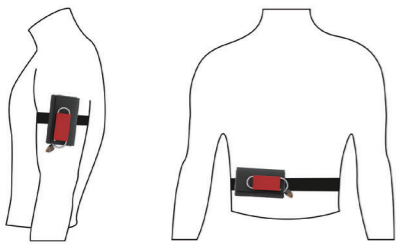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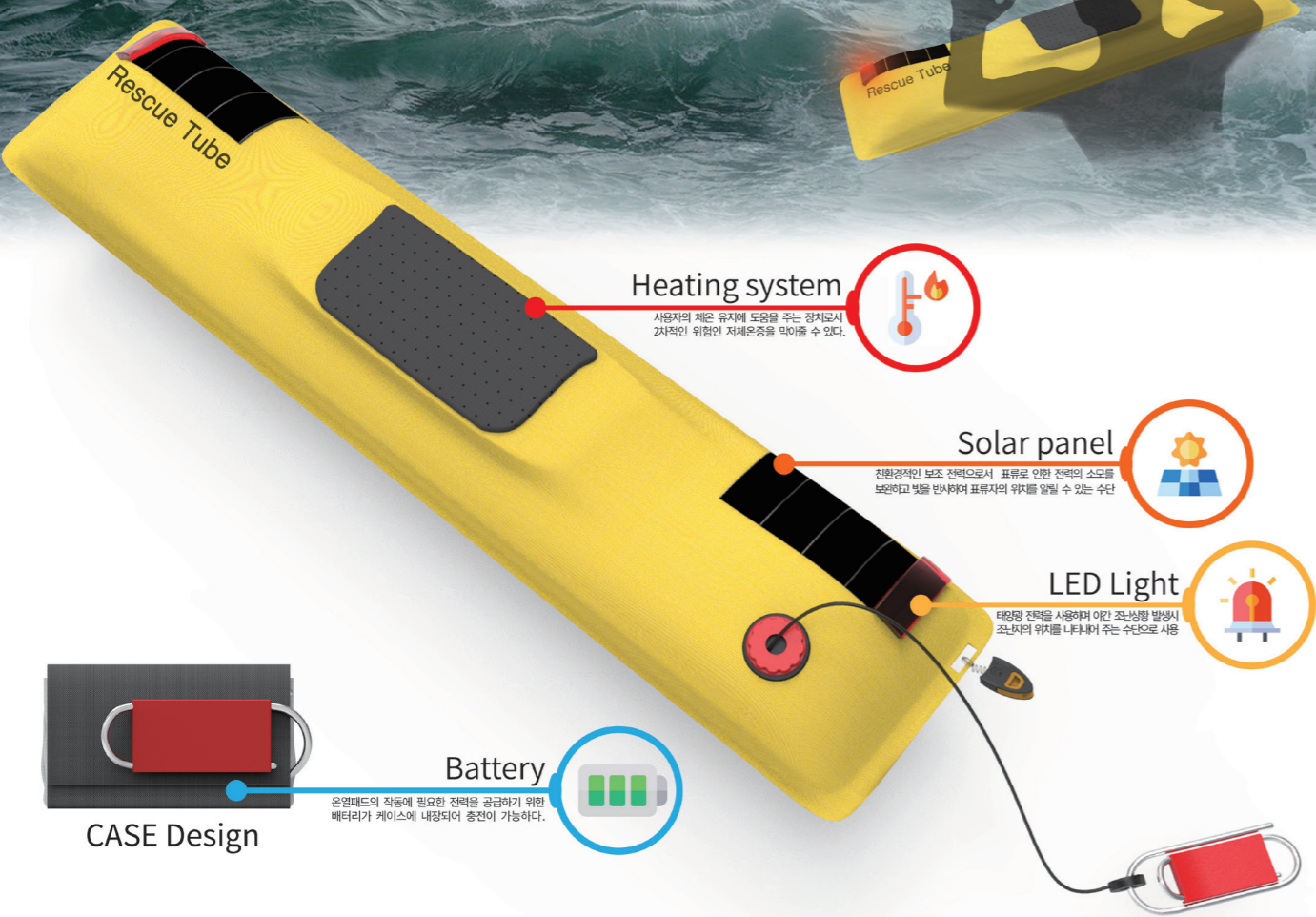
14회를 맞은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 의미 있는 공모전이였다. 그동안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의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공모전도 예년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예리하게 반영하고 깊은 관심으로 발전시킨 작품들이 많았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와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세심한 관찰과 해결의 노력이 더해질 때 유니버설디자인은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런 기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세심한 관심으로 사용성과 실용성 및 생산성을 제한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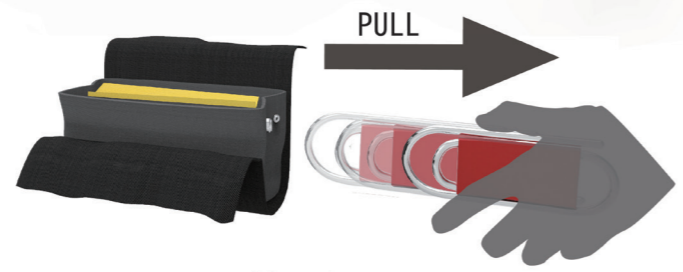
일부 작품들은 모방정도가 높아 탈락시켰지만 오히려 유사한 부분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발전시켜 차별화 한 작품들은 높게 평가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순간팽창구명튜브'나 총장상으로 선정된 'Erect Bottle'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소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한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중·고등학생 부분의 응모작품수는 부족했다. 다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올해보다 더 풍성한 작품이 응모되길 기대한다.

해상재난 조난자 생존을 위한 순간팽창 구명튜브 RESCUE Tube

해상재난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상자를 동반하는 큰 재난이다. 그러나 바다의 변칙적인 날씨, 조난자의 신체상태의 급변으로 인해 조난자 구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SCUE Tube는 이러한 상황에 조난자 위치파악을 위한 태양광 LED, 체온유지 등을 통하여 조난자의 능동적인 생존에 도움을 주는 구명튜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empel of wearing



How to use

01 대상_보건복지부 장관상

순간팽창 구명튜브
김준형

분과평 <제품 및 인터랙션 디자인>

매년 유니버설공모전에는 제품 및 인터랙션(Interaction : 사람과 제품 사이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분야가 작품 응모 수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데, 이번에도 변함 없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품 및 인터랙션 분야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한 요소를 발견해 합리적 아이디어로 개선, 실용성과 편리성을 높인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디자인 한 작품들이 많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Erect Bottle'작품은 사용성이나 휴대성이 잘 강조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목이 불편한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좁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다가선 생각이 선정된 배경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부터 찾아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분과평 <환경, 건축 및 실내 디자인>

산업과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국제 교류가 잦은 현대는 다양한 계층이 한데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개개인이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터전인 환경, 건축, 실내 공간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하게 바꾸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의 환경·건축·실내디자인 분야에는 총 75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차 심사까지는 중·고등부 1작품을 포함하여 24작품(환경 12건, 실내디자인 8건, 건축 4건)이 올라왔다. 2차 심사는 3인의 전문가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독창성·완성도를 고려하여 총 17작품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일반부는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1작품, 아이디어상 3작품, 특선 4작품, 입선 6작품이며 중·고등부는 장려상 1작품이다.

최우수상 작품인 '일상의(衣) 선택'은 의류매장에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옷을 구입하는 행위에 다양한 행태변화가 동반된다는 점에 착안,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이용)할 수 있는 공간(설비) 디자인 기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한다. 우수상 작품인 '함께 취(取)하다'는 공원의 휴게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의자의 높낮이 및 방향 조절, 좌석 내 수납공간 마련, 휠체어 사용 공간 확보 등을 단순하고 통합된 디자인으로 풀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 작품인 'EUNOIA: 아름다운 생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복합문화시설에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주로 바닥단차 해소 및 활동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 결과물이다.

아이디어상 작품으로 '촉지형 웹툰 갤러리, Yellow street, 베리어프리 독립영화관'이 뽑혔으며, 특선 작품으로 '공원 멀티파크라 파운데이션, 화상상담 ATM & BOOTH, 유니버설 어린이 독서놀이터, 놀다 갈래? 커뮤니티 놀이터'가 선정되었다. 이들 수상작품 가운데 다소 아쉬웠던 내용은 무장애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에 머물렀거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깊지 못하여 일상에서 누구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 중·고등부 학생의 응모작품 수가 너무 적어 공모전의 계층구분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점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구현(표현) 방법에 열정이 돋보여 심사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이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로널드 메이스가 제시한 7가지 원칙 외에도 접근성·기능성·적응성·안전성을 기본으로 심미성·경제성·친환경성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무장애디자인처럼 법제화(편의증진법)하기가 곤란하며, 모두를 위한 것에 대한 가치 및 철학을 공유하며 수행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해 본다.



Erect-Bottle

목이 아픈 환자나, 목 관절이 약한 노인들이 부가적인 기기사용 없이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휴대용 물병

a bottle of water for patients with sore throats, for elderly people with weak neck joints,

PROBLEM



물병들 대부분은 입구 부분이 평평하다. 물이 꼭 차있으면 마시는 데에 지장 없으나 물이 점점 떨어질수록 고개를 뒤로 젖히야만 물을 마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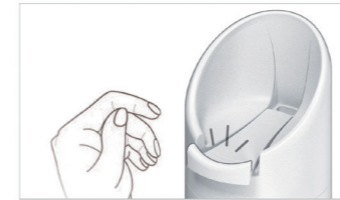
SOLUTION



Erect-Bottle는 입구가 경사져있어 마실 때 코와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 닿지 않아 고개를 젖히지 않아도 물을 끝까지 마실 수 있다.

HOW TO USE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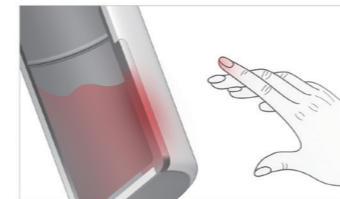
열기 위해 손이 닿는 부분은 면적이 넓어 적은 힘으로도 쉽게 열 수 있다.

Ro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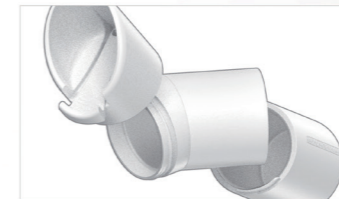
입구를 180도로 돌려 원하는 자세로 마실 수 있다.

Temp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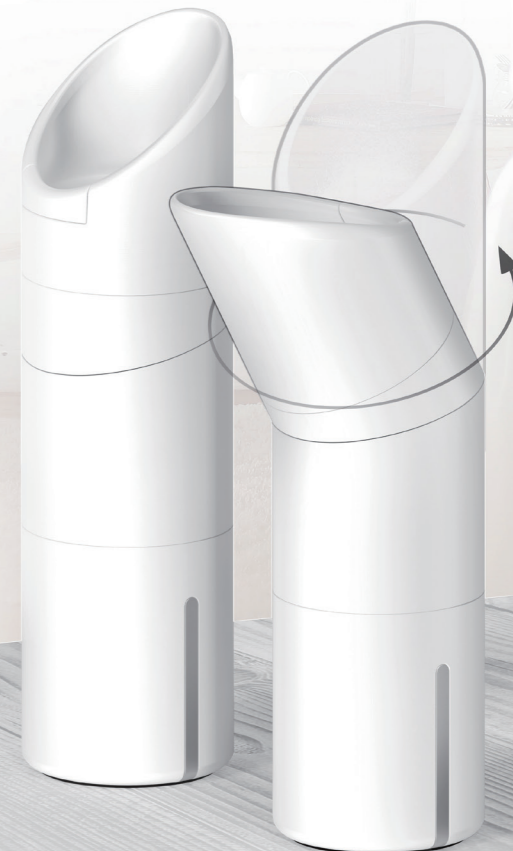


하단에 내부와 연결되어 노출 된 부분은 물의 온도를 미리 알 수 있다.

Separate



하단도 분리되어 청결하게 유지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다.



03 최우수상

- 단 한 분도 답답하지 않도록, Don't Worry 신승은
- 일상의[衣] 선택 고화경, 윤선정, 김창동

응급상황 시 청인 의료진과 농인 환자의 소통을 돕는 디자인
Don't Worry

MOBILE APP GUI/UX, LEAFLET DESIGN

BACKGROUND
 2017년 11월 15일 화재로 인해 병원 침상만 100여 장이 소실된 바 있다. 이 중 중·중환자 병상 10여 장은 화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화재 발생 시 응급상황 시 청인 의료진과 농인 환자의 소통을 돕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응급상황 시 청인 의료진과 농인 환자의 소통을 돕는 디자인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DESIGN GOALS
 1 직관성
 2 투명성
 3 배려

PICTOGRAM 앱서비스와 리플릿 디자인에 활용 가능한 픽토그램.
 1 진료과목별
 2 증상별

APP DESIGN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웹 서비스.
 1 ICON DESIGN
 2 GUI DESIGN

LEAFLET
 1 STRUCTURE
 2 TEXTURE

일상의[衣] 선택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류매장

PROBLEM ANALYSIS
 1. **행거**: 높은 천장에 위치한 행거를 사용하기 어렵다.
 2. **커뮤니티**: 기존의 커뮤니티는 높이가 낮아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이 어렵다.
 3. **가성피킹거름**: 휠체어 사용자는 옷을 걸어야 하는 행거를 사용하기 어렵다.
 4. **가성커뮤니티**: 기존의 커뮤니티는 높이가 낮고, 옷이 걸리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다.
 5. **거울**: 거울이 높고, 휠체어 사용자는 거울을 보지 못한다.
 6. **커뮤니티**: 기존의 커뮤니티는 높이가 낮고, 옷이 걸리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다.

CONCEPT
 "옷을 선택하고 있는 행위가 즐거워야 한다."
 -고화경, 윤선정, 김창동

MASS STUDY
 의류매장 내의 공간과 시설을 분석하고,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DESIGN DETAIL
 의류매장 내의 공간과 시설을 분석하고,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MATERIAL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COLOR CONCEPT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ZONING & MOVING LINE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휠체어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Virtual fitting mirror
Vertically moving hanger
Angular mirror
A low hanger
Moving Line

분과평 <콘텐츠 및 UX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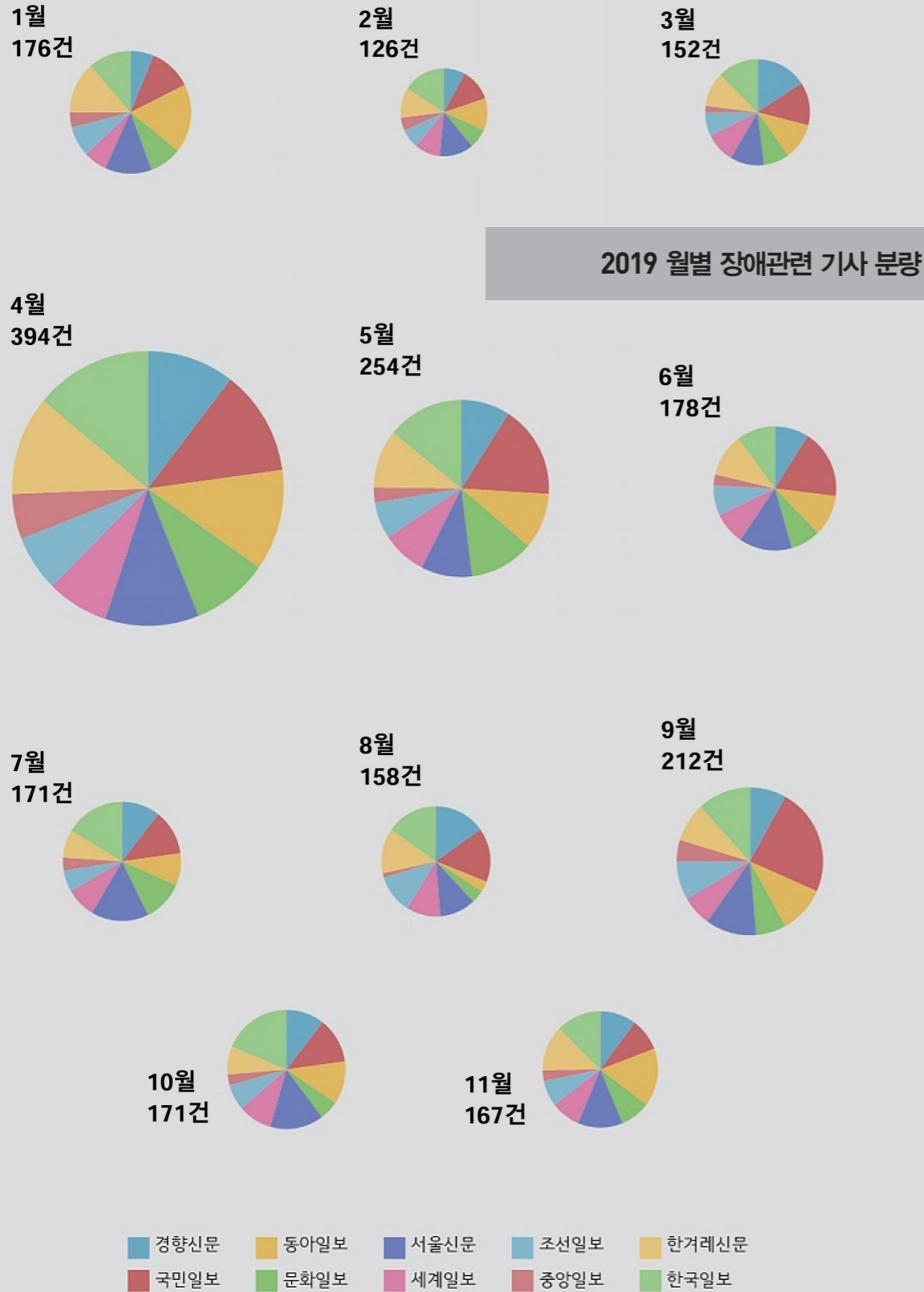
콘텐츠 및 UX 디자인 부문에서는 대학일반부 16건, 중고등부 6건의 작품이 본선(2차 심사)에 진출하였다.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제 이해력과 개념설정, 아이디어 전개 방법과 설득력·예술성·기술력을 함께 고려한 치열한 경합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작품이 출품되었으나 몇몇 작품이 유니버설디자인 측면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컨셉으로 디자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우수상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픽토그램 디자인으로 '응급상황 시 의료진과 농인 환자의 소통을 돕는 <단 한 분도 답답하지 않도록, Don't Worry>'을 선정하였다. 이는 농인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철학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 모두 극찬을 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은 내용과 표현방식이 젊고 발랄한 접근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

분과평 <재난 안전을 위한 디자인>

사소한 것 하나 하나 관찰하여 생활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는 공모전이였다. 학생 신분으로 출품한 작품들의 경우 기술적 연구의 부족과 오히려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출품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안된 모든 디자인에서 향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지정주제로 '재난 안전을 위한 디자인'이 선정되어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생활 전반에 재난안전에 관한 가치관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참가자와 수상자 여러분의 창의적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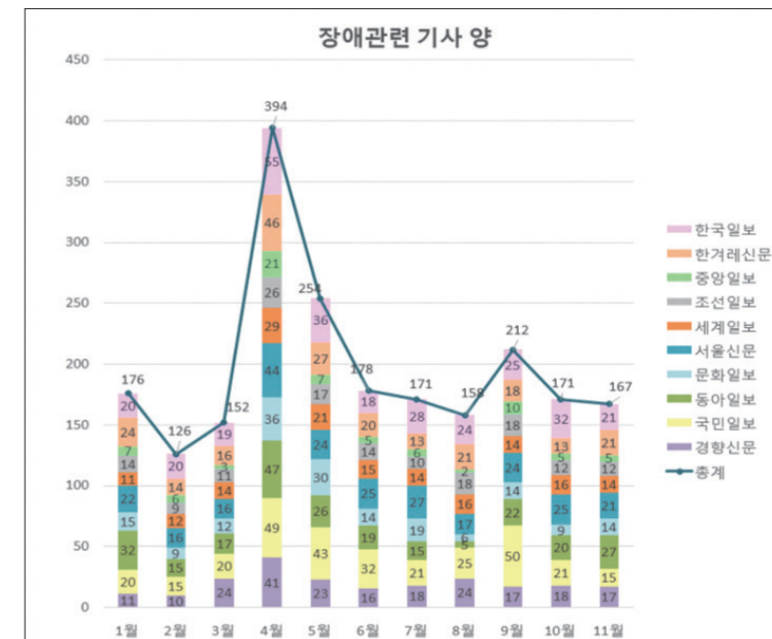
언론모니터링 연간분석보고 2019년, 10대 중앙 일간지 연간 분석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장애와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 했다. 조사는 국내 10대 중앙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의 지면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기사의 양, 보도 지면, 장애 유형, 기사의 내용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기사의 양

조사기간 동안 장애관련 기사를 보도한 양은 총 2,159건이다. 10대 일간지별 기사의 보도 건수를 비교하면 국민일보가 311건(1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장애유형에서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보도된 이유는 진주아파트 사건 등으로 정신 장애와 관련된 제도/행정, 보건/재활의 기사가 4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4월 139건이던 보도는 6월은 51건, 8월 11건, 10월 14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보도 패턴은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볼 수 있었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보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요동치다가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낮아지면 보도의 비중도 낮아진다. 신체내부 장애에 대한 보도는 다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7,329명, 2018년 132,508명이 신체내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1년 사이에 5,179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반응은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나 현대인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사 내용은 질병에서 끝난다. 환경오염 등으로 힘든 건 환자뿐만이 아니라 신체내부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나 건강에 대해 보도할 때 문제를 질병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이어진다는 걸 인식하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 분류

10대 일간지의 장애관련 기사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인물/인터뷰 378건(17.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도/행정 272건(12.6%),

| 구분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서울신문 | 세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 한국일보 | 계 |
|-------|------|------|------|------|------|------|------|------|-------|------|-----|
| 노동취업 | 13 | 19 | 22 | 19 | 25 | 11 | 13 | 3 | 12 | 19 | 156 |
| 교육학습 | 8 | 15 | 19 | 9 | 12 | 9 | 8 | 2 | 6 | 21 | 109 |
| 접근성편의 | 21 | 15 | 26 | 26 | 31 | 17 | 10 | 5 | 18 | 43 | 212 |
| 스포츠레저 | 5 | 8 | 12 | 8 | 11 | 12 | 6 | 3 | 4 | 6 | 75 |

| | | | | | | | | | | | |
|--------|-----|-----|-----|-----|-----|-----|-----|----|-----|-----|-------|
| 문화관광예술 | 18 | 34 | 15 | 10 | 10 | 12 | 7 | 9 | 14 | 18 | 147 |
| 보건재활 | 15 | 19 | 26 | 9 | 22 | 26 | 19 | 12 | 19 | 32 | 199 |
| 소득생계 | 6 | 5 | 3 | 2 | 9 | 4 | 1 | 3 | 7 | 1 | 41 |
| 자립탈시설 | 14 | 8 | 7 | 5 | 19 | 4 | 4 | 2 | 15 | 13 | 91 |
| 제도행정 | 40 | 32 | 29 | 18 | 35 | 19 | 14 | 14 | 34 | 37 | 272 |
| 인권권리 | 32 | 20 | 9 | 11 | 31 | 8 | 11 | 4 | 27 | 29 | 182 |
| 인물인터뷰 | 29 | 77 | 41 | 25 | 26 | 30 | 42 | 13 | 47 | 48 | 378 |
| 자선봉사 | 2 | 28 | 14 | 8 | 9 | 6 | 5 | 1 | 5 | 8 | 86 |
| 기타 | 16 | 31 | 22 | 28 | 21 | 18 | 21 | 6 | 25 | 23 | 211 |
| 계 | 219 | 311 | 245 | 178 | 261 | 176 | 161 | 77 | 233 | 298 | 2,159 |

접근성/편의 212건(9.8%), 기타 211건(9.8%), 보건/재활 199건(9.2%), 인권/권리 182건(8.4%), 노동/취업 156건(7.2%), 문화/관광/예술 147건(6.8%), 교육/학습 109건(5.0%), 자립/탈시설 91건(4.2%), 자선/봉사 86건(4.0%), 스포츠/레저 75건(3.5%), 소득/생계 41건(1.9%)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건, 사고 등 사례가 많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가 인물/인터뷰에 포함되어 378건으로 장애관련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연관되는 제도/행정에 대한 기사도 13.3%의 비중으로 보도됐다. 2018년에는 동계 패럴림픽 등으로 인해 스포츠/레저에 대한 기사가 675건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75건으로 현저하게 낮은 보도 양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낮은 장애인의 소득/생계를 다룬 기사는 41건으로 더 낮은 비중이다. 일간지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이슈가 되는 내용은 보도 비중이 높지만, 후속보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 미술강사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행복 찾고 청년 일자리 찾고

김다현 (사)장애인가카데미 팀장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거야.”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발달장애인 미술강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라는 의미였다. 순수미술을 전공했지만 실업상태에 있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미술 전공자들이 있다. 또 누구보다 절실하게 미술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미술 전공자에게는 직업을 발달장애인에게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발달장애인 미술강사 양성사업이다.

발달장애인 미술강사

화실을 운영하는 선생님, 발달장애인 부모인 선생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한 선생님. 각자 다른 우리가 왜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미술은 즐거운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다. 입시 미술교육을 하던 선생님은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발달장애인 부모인 선생님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한 선생님은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각자 다른 교육방식과 가치관으로 의견 차이는 종종 있었다. 모두 발달장애인 미술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

전시회에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멋진 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발달장애인 미술작품이라는 ‘선입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성’이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시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응이 좋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색과 형태의 의외성이 재밌고 새롭다는 반응이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발달장애인의 미술작품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시된 작품들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고, 뿌듯하게 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매력적인 표현력을 알려주었다. 인사동 갤러리에 많은 기성작가들 전시가 함께 진행되었지만, 우리 전시 역시 그에 못지않은 ‘볼만한 미술전시’였다고 생각한다.

순수함의 다채로운 형태와 표현

‘예술에 장애와 비장애 구분이 어디 있냐.’는 농담을 한다. 경계와 한계가 없는 예술에 ‘장애인 예술’이란 구분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장애인 예술 활동을 접하면서, 장애인이 갖는 예술적 독창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생각, 그 표현의 순수함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 사업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중에는 미술활동이 생전 처음인 분도 있고, 개인전을 해본 분도 있다. 완성도를 떠나, 작품이 주는 재미는 각양각색이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의 미술교육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 내면의 이야기가 더 많은 형태로 소개되고 소통되어 세상에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란다.

꿈더하기 지원센터 ACE반 강사 김미라

발달장애 미술교육은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교육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도 각각 다른 성향과 성격, 다양한 실력을 갖추고 미술활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 지적요소가 비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도 조형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때론 느리고 활동영역의 이해가 쉽게 안 될지라도 기다려주고 반복하며 표현하게 한다면 각자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모든 미술 영역을 대할 것이며 미술활동을 통해 미술 외적인 많은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꿈더하기 지원센터 BEST반 강사 유은실

'발달장애인미술교육사'라는 문구를 봤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공감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과 미술교육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뛰어난 미술적 재능은 있으나 주위의 무관심과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그들의 예술적 재능이 사장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미술교육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강사 안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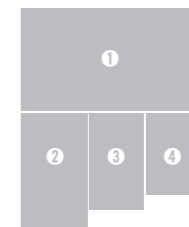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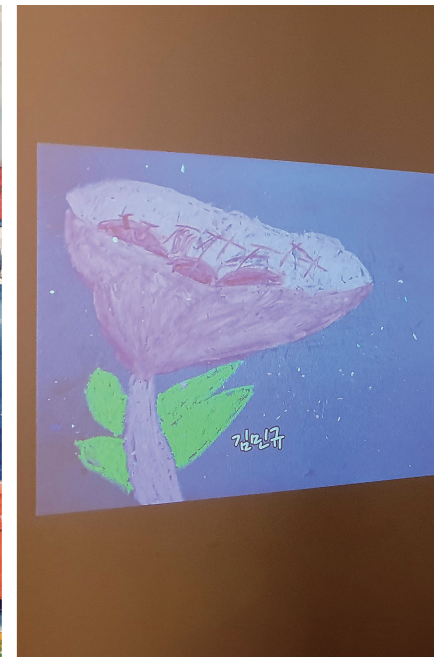
이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회기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미술에 대한 재미와 수업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8회만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저의 교습법이 미숙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였으나 수업의 결과물을 목표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시스플래닛 강사 김민경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기다려주자." 실습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발달장애 교육생이 그리고 싶은 대상을 그리고 칠하고 싶은 색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니다. 기존 미술교육 방법과는 달리 자유롭게 놔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존중하며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육생은 특히 '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크릴물감 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육생이 물감을 유심히 관찰해 물농도를 필요에 따라 달리 조절하며 가지고 노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물감이라는 매체를 마음껏 관찰하고 더 빠져들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교육생은 훨씬 더 대담하게 물감을 칠했으며 보다 예술적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구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사 김영미

진흙 위에서 천천히 피는 꽃처럼 발달장애이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모델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수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정서적, 감각운동적, 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단기 및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을 고찰, 각각의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느꼈던 감정의 소통만큼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에 감사함을 느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 ① 전시회 개막식 행사
- ② 시스플래닛 김기혁 작품
- ③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소망 작품
- ④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민규 작품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 위한 패널토론

장애인지예산 연구 10년, 정책반영 0건

‘통합’은 베리어프리, ‘주류화’는 유니버설디자인



정리 | 윤선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주류화정책 실현을 위한 패널 토론회'를 12월 06일 개최했다. 주제 발표 없이 쟁점별로 진행된 토론의 패널은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지영 교수(송실대 사회과학연구소), 김동범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삼호 소장(장애인가카데미 인식개선 교육센터)이다. 좌장은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가 맡았다. 본지는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 토론 영상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www.ableinfo.co.kr) 장애이슈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자 주

김동호 대표 | 장애주류화 논의는 2011년~2012년 본격 연구 되었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에서 장애인지예산을 연구·조사·발표하며 이슈화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장애인지예산이 담겼는데 법제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실천적 단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은 장애인지예산 연구를 처음 하였고,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지영 교수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일하시고 송실대학교 교수로 계시구요. 장애주류화에 참고가 되는 성주류화 성안 과정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실 것 같아 모셨습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김동범 총장을 모셨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많은 역할을 하셨죠. 법안 발의 실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이하 아카데미) 소장입니다. 윤 소장은 인권포럼 때부터 장애인지예산 조사도 하시고, 장애주류화 원고도 많이 쓰셔서, 문제제기를 잘 해줄 분이라 생각합니다.

김동호 대표 | 주제발표는 없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토론 해보자는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세부자료는 못 드렸지만, '주류화가 장애운동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장애주류화라는 용어는 적절한가.' '장애인지'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성주류화 작동원리는 장애주류화와 결합할 수 있는 개념 같은데, 상대적 소수인 장애의 문제가 수용 될 수 있겠는가.

또 '장애주류화와 성주류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주류화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 근거 조항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과연 장애주류화가 이런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포괄한다 하더라도 출발부터 포괄할 수 있는가. 단계적으로 간다면 어느 부분부터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지영 교수 | 연구주제로 공부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

습니다. 95년 북경대회에서 성주류화 강령이 발표되었고, 그것을 국내 도입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진행 되었구요. 법제화 논의는 2010년~2011년,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법제화 과정은 놀랄 정도로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 법이 급진적 측면이 있는데, 큰 반발이 없었던 이유로 성주류화나 성별영향평가를 정확히 이해 못했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점이 법제화 지연의 쟁점이었어요. 결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가 지원 하에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와 지원기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김동호 대표 | 의외로 큰 저항이 없었다. 얼마나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논의도 있다. 장애주류화도 제도화 한다면 누가 실시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삼호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주류화가 여성계 엘리트를 위한 장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셨는데요.

윤삼호 소장 | 성주류화의 핵심은 여성의 입장과 관점을 법과 제도에 포함시킨다는 점이지요. 주류화와 상반되는 말이 특정화 혹은 적극적 조치인데요. 의무고용제도나 대학 특례입학제도는 특정적 제도죠. 이런 적극적 조치가 효과적인가. 주류화 정책이 효과적인가. 별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성주류화가 엘리트 여성의 정치 발언권을 넓히는 역할은 했다. 그런데 취약자 여성들은 주류화정책의 혜택을 받았는가. 실증적 연구에선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지영 교수 | 주류화 문제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목표는 성별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성주류화정책이 더 기여하느냐 특정적 정책이 더 기여하느냐. 그런 문제보다 성 평등한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위해 어느 맥락의 정책으로 가야하는가. 장애주류화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동호 대표(장애주류화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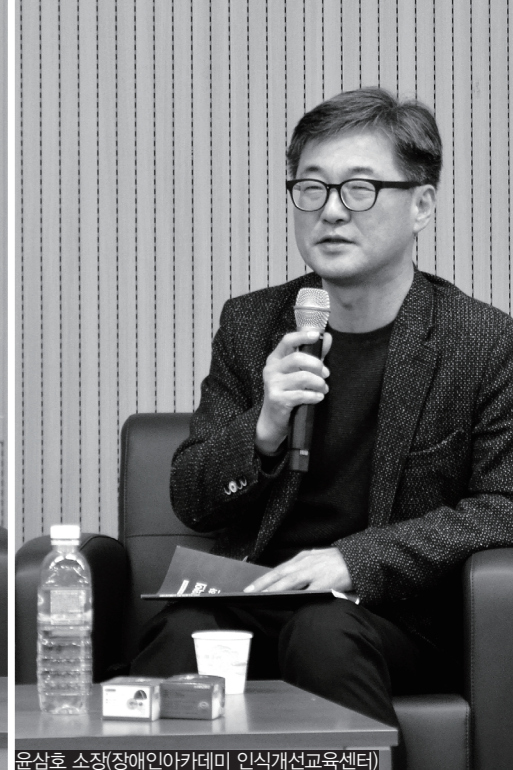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지영 교수(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김동범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삼호 소장(장애이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윤삼호 소장 | 여성계는 특정적 정책조차 엘리트 중심이었어요. 장애계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정적 정책도 엘리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어요. 의무고용 제도만 해도 엘리트 장애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특례입학제도도 비장애인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엘리트 장애인을 위한 조치로 보긴 어렵죠. 비장애인 주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장애인들을 위한 특정적 제도로 활용되는데, 여성계의 특정적 제도나 조치는 주로 엘리트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대표 | 장애계는 7~8년 전부터 장애인지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초창기부터 연구하신 김동기 교수님이 회고를 해주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현재 느낌은 어떠한지 돌이켜 보죠.

김동기 교수 | 2008년 여름, 인권포럼의 양원태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 인권포럼이 그동안 지자체 예산, 조례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화 했는데, 새로운 의제를 개발해보자.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성인지였죠. 2008년부터 10년 동안 장애인지 예산, 장애영향 평가 연구를 해왔는데, 주류화에 대한 생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주류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 혹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론이나 학술에서

도 '그 경향을 주도하는 것,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성주류화나 장애주류화는 권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것은 감수성과 연관이 있다. 보편적 사업에서 얼마나 여성을 고려하고 장애를 고려하는지. 감수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주류화라고 쓰는 거지 그 힘을 남성에게서 여성에게,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에게 옮기는게 아니다. 남성과 비장애인 중심 사회였는데, 그 주류사회에 장애와 여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주류화다.

예산의 파이는 커졌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잖아요? 왜 체감하지 못할까. 왜 변화에 만족하지 못할까. 장애정책예산만으로 장애인 삶의 변화가 힘들다. 장애정책 예산이든 여성정책 예산이든 목적은 평등이거든요. 성평등을 지향하고 장애비장애의 평등을 지향하는 건데, 장애예산만으로는 큰 틀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예산과 법을 건드리지 않으면 성평등적이고 장애평등적인 세상은 오지 않는다. 때문에 주류화 논의가 시작 된 거죠.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관심이 없어요. 성인지는 여성민우회에서 시작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끌어왔는데, 장애인지 연구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0년 연구했는데, 정책에 단 1도 반영된 게 없어요.

의미 있는 연구고 가야할 방향은 맞는데, 힘 빠지는 의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회고합니다.

김동범 총장 | 복지부 뿐 아니라 장애계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권리보장법도 준비는 거의 7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이 81년 만들어질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시혜적으로 만들어졌고, 수없이 개정 되었지만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지 그 법의 어디에도 이용자의 입장 또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없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큰 제도가 실현가능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주장이 누적되어 결국 실현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 졌다는 측면이죠. 이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장애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필요는 분명 있다.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인지예산이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하는 부분만큼은 분명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김동기 교수님이 지치셨다고 하는데, 분명 확 바뀌는 환경은 온다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듯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바탕에서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10년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될 것 같다. 다만, 이번 권리보장법은 시기상 안될 것 같아요. 발의하고 보니 복잡하고 무겁고 중복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마음을 접었어요. 다음 총선에서 좀 더 정리해서 내자.

문지영 교수 | 성별영향평가가 반발 없이 진행되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20~3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성별영향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성평등인가에 대한 생각은 오랜 동안 진행된 논의예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했던 많은 논쟁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죠.

성주류화는 권력관계의 문제 맞아요. 단순히 감수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있다.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혹은 가난한 자든. 불평등한 구조가 있고 그걸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장애평등을 지향한다 장애통합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정부정책 담당자들 혹은 국회의원에

게 장애영향평가가 장애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인지, 장애평등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답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성인지라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부예산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성별 격차를 완화시킬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거죠. 업무를 담당해보니까 어려운 게 이 예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복지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될 경우 성별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성인지적으로 예산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예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오는 이런 문제로 만들면 안 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기존 예산을 보완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김동기 교수 | 개인적으로 용어를 선정할 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거죠. 발달장애쪽에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상행동, 과잉행동이란 용어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관점이 바뀌면서, 발달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보고, '도전적 행동'이라고 새롭게 쓰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에 관심 없는 95%의 비장애인들과 장애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조차도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도전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많아요. 사회복지에 오래 종사한 사람조차도, 나의 권위와 전문성에 도전하는 건가? 하지만 이런 도전이 아니거든요. 주류화라는 용어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주류화라는 말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다 장애인 되라는 얘긴가?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주류화라는 용어가 혁신적인 용어처럼 보이는데, 과연 95%의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느낄까. 도전적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문지영 교수 |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장애인 주류화가 아니지 않나요? 장애 주류화잖아요. 여성 주류화가 아니고 성 주류화거든요. 정부정책을 결정 할 때 한국사회는 지역을 고려하죠. 정부 인사 정책 때도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거 가리잖아요. 요

즘은 성주류화 하나까 여성도 고려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종교,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 사항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성문제가 정부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성주류화하면서 성문제도 계급이나 지역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만든 겁니다. 주류화의 문제가 장애인 주류화라고 오해되면 그럴 수 있지만, 장애가 갖는 문제들이 정책결정에 성이나 종교 지역과 같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류화라면 그렇게 염려할 문제일까요.

윤삼호 소장 | 주류화는 장애 쪽에 익숙한 용어가 아니죠. 여성운동에서 쓰는 언어였고 장애 쪽은 통합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최근 장애계도 장애주류화 표현을 쓰는데 제한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주류화에 버금가는 수준의 장애주류화 논쟁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고 주류화 쟁점하고 통합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부시켜 안하는 것이죠. 80년대~90년대 장애인운동에서 통합 개념이 강력했는데, 2000년대 이후 통합 개념은 굉장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주류와 비주류를 보죠. 남성은 주류 여성은 비주류. 인구수는 반반임에도 정치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거죠.

비주류는 나쁜 개념이죠. 근데 장애계는 주류와 비주류로 장애와 비장애 관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수 소수로 구분하죠.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메이저와 마이너 개념으로. 소수자 개념은 긍정적 의미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장애인운동을 소수자 운동으로 바라보고, 그 소수성을 강화시키자는 주장도 합니다. 다수에 포함되고 통합되기보다 소수성을 강화시킨 장애문화를 발전시키자. 이게 세계적 장애인운동의 핵심이고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주류화라는 용어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60년대 유럽에서 정상화 원리가 장애인운동에서 강력하게 공격받았는데, 주류화라는 말도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런 공격이 없는 이

유는 세계 장애인운동의 담론에서 주류화는 쟁점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류화를 찬성할지 말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통합과 주류화를 거칠게 비유하면 디자인 개념으로 통합은 베리어프리 같고 주류화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디자인 개념으로 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주류화는 처음 기반부터 불평등 없이 정책이나 제도가 출발하자는 개념이고, 통합은 기존의 불평등한 것을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해 불이익 당하는 집단이 주류사회에 통합되도록 하자 이런 거잖아요.

여성은 크게 보면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장애 쪽은 정체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농인 사회는 주류화를 강력하게 반대하죠. 수화언어를 통한 자기공동체의 강력한 정체성과 문화의식이 있는 거죠. 구화를 사용하는 주류사회와 통합해야 한다? 주류화해야 한다? 그러며 이들은 깜작 놀랄 일이죠. 장애사회는 여성사회보다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고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주류화하고 부분적으로 특정화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동호 대표 | 문 교수님 말처럼 성별을 고려한 특별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투 트랙으로 포괄해서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가령 재난관리 국가정책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이야기 하면 큰 틀의 주류화 영역 안에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서,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지.

윤삼호 소장 | 관광진흥법 제47조가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 조항이 포함 되었습니다. 일반 법률에 장애 관련 쟁점이 들어간 거죠. 저는 이게 주류화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통합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법률 안에 장애요소, 노인요소, 아동요소, 사회취약 계층에 관한 조항을 특별하게 더 기술하는 것. 이것은 주류화하고는 차이가 있다.

주류화는 정치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주류화는 남성 위주로 제도화된 정치·사회·문화 권력에 여성의 관점이 포함되고, 여성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주류화의 큰 전제죠.

근데, 재난안전법에 장애 요소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치가 빠진 거죠. 기술적인 조항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것은 통합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적어도 주류화 조치라는 것은 그것보다 상위 개념에서 국가 정책 전반의 골간을 만드는 정도는 되어야 주류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김동기 교수 | 제가 두 번째 무력감을 느낀 이유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참고할 게 성주류화 밖에 없어서. 볼만한 문서가 성인지·성영향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류화는 더 먼 이야기구요. 그러다 보니 성주류화를 장애 쪽에 접목해 생긴 철학인 거죠. 장애주류화와 장애통합, 장애포괄의 관계 설정을 하셨는데, 어떤 문서에도 없는 얘기예요. 윤 소장님 생각인거죠. 굳이 장애주류화와 장애통합을 구분한다면, 통합과 포괄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통합은 물리적 통합을 강조하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물리적 통합이죠. 물리적으로만 통합된 특수학급은 반대도 많죠.

요즘은 한명의 청각장애인 학생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다닐지라도 수화 통역을 지원하는 것, 이게 장애포괄이죠. 기회와 자원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한 물리적 통합은 의미가 없고, 장애당사자에게 기회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장애포괄이다.

장애통합과 장애포괄을 장애주류화와 경계 설정 해보면, 장애포괄은 목적이고 목적을 향한 수단적 목표로 장애주류화를. 그 수단적 목표의 전략으로 장애분리통계,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교육 4가지가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김동범 총장 | 사실 여성계 흥내를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할당을 받던 시절, 여성의 정치참여 과정을 쫓 봤어요. 여성도 정치 참여를 주장했을 때,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마땅한 여성이 없다고,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양. 장애인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장했죠.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래요. 정당에서. 정치할 만한 장애인을.

여성기업활동 촉진법이 있어요. 그대로 가져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통과되더라구요. 장애계가 여성계를 벤치마킹한 건 사실인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옷이 좋아서 같이 입었는데, 이 옷이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어색함이 있더라구요.

저는 용어 정의 보다는 지향점이 있다면, 그 지향점을 향한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언가. 우리에겐 CRPD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산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장애를 예산에서 고려할 수 있게, 그걸 실현시킬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얼까 논의하는 게 좋다고 봐요.

김동호 대표 | 현실적 이야기로 돌아와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때 모든 사업이 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내용과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일 년에 한번 정도. 유엔에서도 모든 사업의 담당자는 사업 진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에 기술항목이 하나 있어요.

젠더의 관점을 어떻게 사업에 반영 했는지. 저는 복지부와 유엔에서 일 했을 때, 최소한 이 질문을 모든 사업 담당자들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떨까. 당신의 사업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했는지, 적절한 예산을 할당했는지. 그 관점에서 성과는 무엇이나 라고만 해도, 정책과 제도 이런 것이 장애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했어요.

접근성 부분들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교통은 국토교통부죠. 지금까지 복지부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국가 건축정책 주류에 담아 달라. 이런 구체적 사례를 축적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아서 하나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철학적 고민 속에서 방법론도 나오겠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이야기 해주시면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동범 총장 | 사회 전반적으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고 일차적 목표가 뭐냐.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장애라는 계층을 고려했느냐,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영향을 줬느냐. 이런 정도의 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단계를 밟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김동호 대표 |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걸 하기엔 법과 제도가 있어야 정부는 움직일 텐데요.

김동범 총장 | 한 목소리로 밀어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적으로 정리한다고 실현이 될 것인가.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사회가 성숙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반 건축 담당하는 건교부에 이걸 주류화한다고 넘겨주는 게 좋으나,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복지부가 쥐고 있어야 하느냐. 건교부 쪽으로 옮겨놓는 순간 제가 볼 땐 분명 그 사람들 시각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장애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 전략이나 방법은 뭐냐. 방법은 제가 봐도 제시하기 어렵다.

윤삼호 소장 | 우리 운동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들 때처럼 강력한 동원 체계를 할 수 있을까. 전 어렵다 생각 합니다. 그런 운동 세대가 이미 지나간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과 같은 법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은 힘들 수 있겠다. 어느 세력이 주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평가해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복지법이든 권리보장법이든 바꿀 때 장애 관련 내용을 슬쩍 넣자.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전략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성인지를 경험해봐서 넣으면 안 된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장님이 차기 국회에서 재정비해 도전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땐 장애인 기본법 전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동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관광문제가 들어간 것처럼 기존 법률 속에 장애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당장 실현할 수 있다. 복지법 혹은 권리보장법 논의할 때 (일반법에 장애관련 조항을 넣는) 공동전선을 펴는 것도 좋고 통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관련 통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김동기 교수님이 개발하는 장차법 모니터링 할 때도 국가통계시스템에 장애 관련 통계를 지금보다 세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기존 법에 장애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 공공 영역에서

는 (장애에 대한) 국가 통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지 제도를 법제화 하는 거는 많은 동력을 모아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김동호 대표 | 김동기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 장애인지예산 정책의 관건은 장애인단체들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지.

김동기 교수 | 서울시 장애인지 연구를 하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통계가 60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장애 구분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최소 장애 구분 통계는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통계를 다 받아봤는데, 단 한건도 장애구분 통계 코드가 없었어요. 저는 단계적으로 4가지가 있지만 국가 통계법 개정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60% 밖에 안 되는지.

왜 장애인은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지. 통계가 없어요. 통계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통계가 없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죠.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통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지영 교수 | 장애주류화라고 했을 때, 성주류화처럼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제화로 가려면, 축적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류화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 다 말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또 가능한 것들이라 어렵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동호 대표 | 장애주류화가 앞으로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풀어갈지 난제죠. 장애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낼지도. 장애주류화를 이야기하면 무릎을 탁 치는 분도 있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도 계시죠. 장애계에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타임뱅크 : 탈시설 장애인의 이웃 만들기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다

정리 | 윤선애 발제 | 손서락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 대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19년 8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가운데 1부에 진행된 타임뱅크 코리아 손서락 대표의 발제문 내용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면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예민한 부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가장 먼저 느끼고 몸의 고통을 표현해 준 덕분에 우리는 몸을 돌보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와 병폐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표현해주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다. 이들이 표현하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다." (2018년 에드가 칸 박사의 연설중, 2018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토론회에서)

타임뱅크는 무너진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

타임뱅크는 공동체가 무너진 곳,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관심과 집중을 들 수밖에 없다. 니트 옷의 실이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주변부부터 느슨해지고 풀려져 나간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부분은 우리사회의 주변부 계급과 계층이다. 장애인 계층은 바로 주변부화 된 대표적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칸 박사의 말은 바로 타임뱅크 운동이 왜 장애인 운동과 함께 해야 하는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개념인 '탈시설' '당사자주의' '의존과 자립' '장애인 노동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타임뱅크의 철학과 가치는 100% 동의 한다. 타임뱅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타임뱅크란 무엇인가

A와 B가 있다. A가 B를 위해 한 시간의 도움을 주었다면, A는 한 시간만큼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B 또는 C에게서 받을 수 있다. 타임뱅크는 그런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이웃의 B를 위해 서류 정리 봉사를 했다면, A씨는 장보기가 필요할 때 B 또는 C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타임뱅크는 전문가의 봉사 한 시간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의 봉사 한 시간을 동등한 가치로 여긴다.

모두의 한 시간은 동등하다

장애인 노동의 특수성과 보상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화폐 중심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한계 안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모두의 한 시간은 평등하다는 가치는 시장경제에서 무시되어 왔던 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장애인이든 가족과 이웃, 사회에 기여할 노동의 가치를 가진 존재다. 시장경제는 이런 노동자체를 화폐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공동체를 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타임뱅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노동을 임금노동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방법도 제시한다.

봉사 시간을 환산기준으로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 노동의 종류에 차별 없이 시간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누구나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교환하다보면 관계는 싹트고 공동체는 튼튼해진다.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중 받게 되며, 서로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상호지원의 네트워크는 페미니스트들과 장애계가 논쟁 해온 '의존'과 '자립'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능케 한다. 자립과 의존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고도의 자립된 존재는 의존을 필요로 하며, 의존은 독립적인 개별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 자립에 기초하면서 호혜성(Reciprocity) 있는 상호의존의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립 개념이 한 측면에서는 다소 기술적이고 공공서비스 중심이었던 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치적 아젠다로 치우친 맹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반해 타임뱅크는 바로 장애인의 이웃 공동체 만들기(Community Building)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라 평가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주의에 대한 박용인(안산 타임뱅크 코디네이터)씨의 새로운 분석도 의미가 있다.

재활모델(의료모델) 관점

당사자의 의미 자체가 없던 시대. 이때는 장애인이나 환자는 치료의 대상, 재활의 대상, 서비스 대상자에 불과했다. 철저히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재활의 기준, 치료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환자는 비정상적 상태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재활이 필요하고 정상인의 범위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자립생활모델 관점

장애인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당사자는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고, 자기 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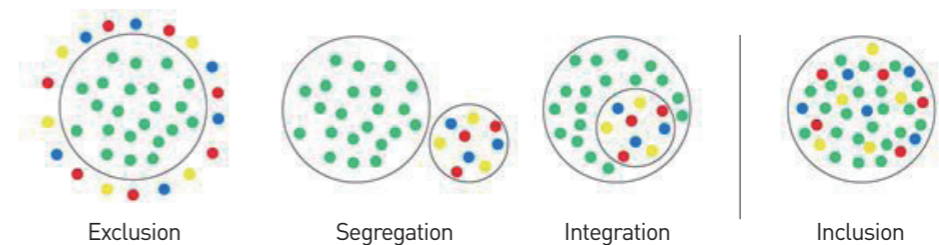
타임뱅크 모델 관점

장애인을 당사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삶이 아니라 상호간 호혜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만약 당사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호라는 말도, 호혜라는 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면서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배제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탈 시설 이후 장애인의 삶은 자립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고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움을 주고받을 이웃이 없어 고립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이 대다수다. 2018년 서울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39.9%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장애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된다. 실례로 서대문구의 발달장애인 카페에 일하는 청년들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재능 공유 모임에 초대되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들은 비장애인과의 어울린 경험이 처음이었다. 카페가 지역사회 안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카페 대표의 설명이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혜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노동을 기여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한다. 탈 시설



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적극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그들이 가진 노동의 자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있어야 한다. 자산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장애인도 누군가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결핍 중심의 접근과 자산 중심의 접근을 비교해보면 아래표와 같다.

접근 방법에 따라 복지서비스 설계와 전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활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 중심으로 접근하면 시각 장애인이 장애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받

| 결핍중심 접근법 | 자산중심 접근 |
|----------------------------|--------------------------------|
| 공동체의 결핍과 부족에서 출발 | 공동체의 자산에서 출발 |
| 문제현상에 대응 | 기회와 강점을 발굴 |
| 사용자에게 서비스 전달 | 공동체 구성원에게 투자 |
| 서비스 전달기관의 역할 강조 |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
| 개인에게 포커스 | 지역 및 이웃, 공익에 포커스 |
| 사람을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취급 | 사람을 제공할 역량을 가진 시민 또는 공동생산자로 취급 |

| | |
|------------------------|-------------------------|
| 사람을 수동적 또는 받는 사람으로만 취급 | 사람을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주체로 도와줌 |
| “사람을 고침” |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 프로그램을 해결책으로 제공 |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다고 봄 |

달 장애인에게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에게 안마봉사를 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를 가르쳐 지역사회의 소통을 도울 수 있다. 비장애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한 번도 쓸모 있게 사용되지 못한, 무궁무진한 자산이 장애인에게 넘쳐나고 있다. 자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상호 의존의 지원체계는 완성되어 간다.

코프로덕션과 동료지원

타임뱅크를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코프로덕션이다. 코프로덕션 없는 타임뱅크는 타임뱅크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 원칙은 타임뱅크를 만들기 전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중요한 작동원리이다. 코프로덕션은 한마디로 ‘강력한 공동체와 더욱 효과적인 사회 서비스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전문 직업인, 서비스 사용자, 사용자 가족과 이웃 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문가와 내담자 혹은 수혜자 간에 평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들어온 당사자 참여 (Participation)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코프로덕션의 대표 모델로 언급되는 것이 동료지원(Peer to Peer)방식이다. 타임뱅크 역사에서 동료지원 모델의 사례는 청소년 법정이었다. 범죄 청소년이 다른 범죄 청소년의 심리법정에서 배심원 봉사를 하였다. 범죄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범죄 청소년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동료지원은 전문가나 서비스의 공급자에 의존하기보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는 모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당사자의 자조모임을 들 수 있고 동료상담을 들 수 있다.

암환자 자조모임 ‘나우’, 정신장애인을 형제로 둔 청년들의 자조모임 ‘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모임인 ‘손잡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모임 ‘estas’, 자조모임의 성격을 벗고 협동조합으로 진화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모임 ‘꿈고래 놀이터’, ‘꿈꾸는 느

림보’ 각종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등 이미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보다 자신의 문제점을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전문가를 뛰어넘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뛰어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병이나 상황을 경험한데서 오는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또한 서로에 대한 친밀감도 가지게 된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지칭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상담보다 동료 상담을 더 신뢰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여러 자조모임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장애인 상담도 ‘동료상담’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동료상담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데다가 또 다른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명칭을 동료상담 ‘전문가’라 부르고 자격증을 부여하며 장벽을 높여간다. 물론 전문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로도 상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많다. 문제와 고민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재능과 정보, 네트워크까지 공유하는 친구가 많아진다면 상담의 효과는 월등히 올라갈 것이다. 타임뱅크는 바로 여기 주목하여 동료상담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즉, 동료 간 상담뿐만 아니라 동료 간 다양한 재능, 기술, 지식, 정보 등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환을 촉진하는 장애인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조모임이나 동료상담을 강화시키는 것은 커뮤니티케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같은 경험과 공감능력, 정보력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이기 때문에 주민 간 돌봄까지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조모임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타임뱅크가 활용될 경우, 더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타임뱅크의 코프로덕션은 모두의 노동을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진정한 동료지원을 만들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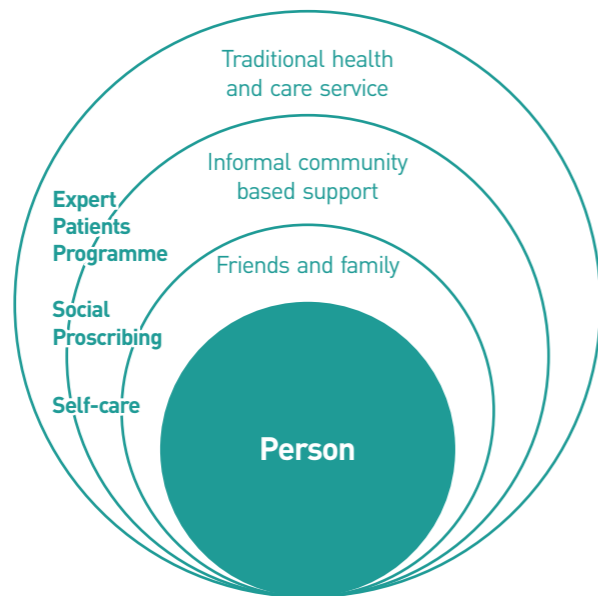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란 전달체계 중심으로 각종 의료 보건 서비스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돌보는 방향이다. 즉 People helping People의 철학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적 돌봄을 넘어 공동체적(혹은 사회적) 돌봄이 이뤄져야 함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가족 돌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돌봄을 정부나 시장경제에 의한 돌봄으로

제한시키는 것이다. 공동체가 돌본다는 말은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이웃 간의 상호 지원체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대표적인 정책이 'XX 국가책임제', '무한 돌봄' '돌봄비용 제로'와 같은 공약들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영역도 있지만 정부가 혼자 장애인 삶의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까? 애시 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아래 도표는 커뮤니티케어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국내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네덜란드의 방문간호조직 부조(Buurtzorg)의 서비스 모형도다. 내담자의 지원시스템을 설계할 때, 환자를 중심에 두고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 친구, 이웃사회의 비공식적 관계망을 공공서비스보다 우선적 지원망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모형은 영국의 커뮤니티서클(community Circle)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도 당사자 중심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만들어가는데 우선 방점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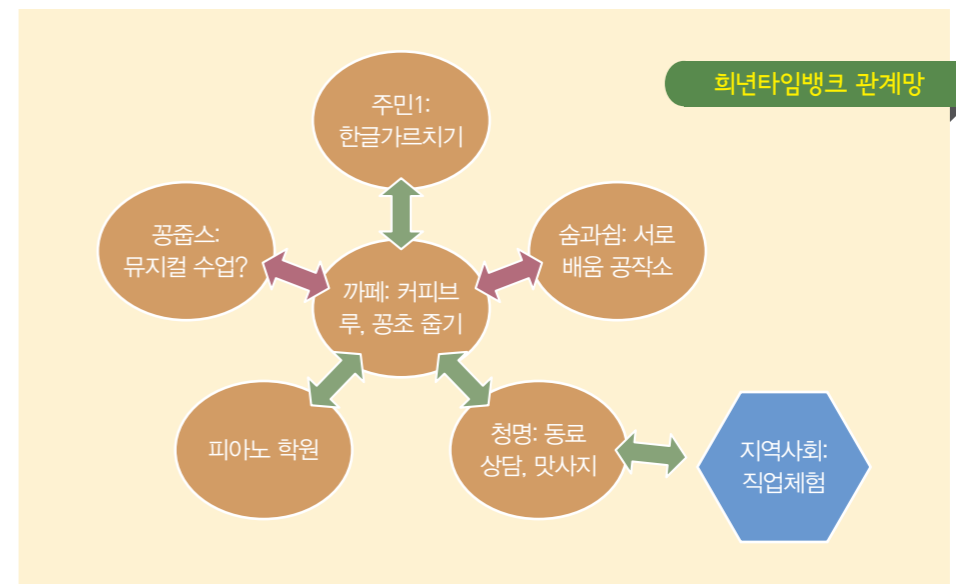
전문 인력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만으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공동체 돌봄을 이루어낼 수 없다. 가족에게 전문 인력서비스 외의 나머지 모든 의무를 지운다면 그것은 극형에 가깝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단체들이 연결되어 지원 역할을 하도록 매개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타임뱅크는 느슨해진 지역사회의 신뢰를 촘촘하게 지속해줄 수 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자원봉사를 관계중심의 지



속가능한 자원봉사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다. 타임뱅크는 시간화폐를 벌고 소비하는 경제활동 일뿐만 아니라 역량을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간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구축해나간다.

장애인의 이웃 만들기와 타임뱅크

아래 그림은 최근 서대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타임뱅크 모델이다. 새로운 유형이라 함은 기존의 개인 대 개인의 봉사교환을 넘어 단체와 단체 간 봉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봉사의 교환을 매개하는 것은 시간화폐이며, 이 봉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시간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자존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공감 할 수 있었다. 봉사를 지켜본 주민들 속에서 비록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안마나 상담에 대해서 취업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관계망의 확산이 장애인에게 새로운 취업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아직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면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연계하는 강력한 커뮤니티 건설이 가능하다.



“나는 매일 희망을 연습합니다”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2019.10.03

전체연필가 김지희 이순도 감독 현진식

기획사: 영화서남이, 창작재단 917, 배급: 영화사들, 제작: 김소혜, 프로듀서: 진모영, 김나래, 촬영: 현진식, 이경준, 편집: 현진식, 음악: 유종호, 현진식, 주제가: 소메, 홍보: 마에라, 필연플랜, 온라인: 마에라, 포디엄, 광고디자인: 스푸트닉, 예고빈, 미어켓

예술가 발달장애인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러의 탄생

류미레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이번 호에는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의 음악 세계를 조명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의 음악을 통한 성장과 소통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이하 나의 노래)〉, 자폐성 발달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은성호씨의 가족 이야기 〈녹턴 Nocturne (이하 녹턴)〉입니다. 두 편의 영화를 미리 본 저로서는 좀 더 빨리 소개하고 싶었지만 〈녹턴〉의 개봉 시기를 알 수가 없어 기다렸는데, 2020년 개봉한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나의 노래〉는 깔끔하고 섬세한 연주가 장기인 풋내기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가 주인공입니다. 김지희 씨는 기타를 잘 치는 것 말고 다른 꿈이 없는 스물넷 소녀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 연주가 제자리인 것이 조금 고민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기타에, 일상에서는 엄마 뒤에 숨었던 지희 씨가 어느 날 불쑥 자신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을 말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녹턴〉은 자폐인 음악청년 은성호 씨와 동생 건기 씨 그리고 엄마 손민서 씨의 노력과 긴장, 갈등을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엄마 민서 씨는 성호 씨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동생 건기 씨는 성호 씨만 돌보는 엄마가 못마땅합니다. 2008년부터 장장 11년 동안의 시간을 담은 이 영화는 장애인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음악인들이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많은 두 영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문턱, 다른 해법

〈나의 노래〉에서 선생님들은 지희 씨에게 박자감각을 알려주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선생을 바꾸지요. 지희 씨의 아버님이 말합니다. “행복하면 됐다”라구요. 행복해 할 만큼만 즐기면 되는 거지 힘들어할 정도로 노력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녹턴〉의 선생님들은 무섭습니다. 성호 씨에게 연습을 몇 번 했냐고 호통을 치고

왜 어린애처럼 징징 대냐고 꾸짖습니다. 혼나는 성호 씨는 당황했는지 돌발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마저도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형님이 왜 아이처럼 그러냐고, 이 장면들은 극도의 상호신뢰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이 그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장애로부터 오는 결과인가 그 사람의 성실성의 문제인가를 판단할 눈이 있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질타인 거죠.

두 영화 모두 선생님들의 진솔한 고민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장애 때문에 느리다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차이는 인정하겠지만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은 짚어야 겠다.', '이런 식이면 레슨을 할 필요가 있냐'와 같은 질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수련이 덜 필요한 영화 장르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이 질문들은 유효합니다.

힘들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수시로 튀어나온다. 실패가 확실하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한다……. 이 말들은 창작자라면 거의 모두가 읊조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 문제들에 대해 비껴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2005년부터 당사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바라며 미디어교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현장에서 비슷한 질문을 만나면서 고민합니다. 교육기획자가 사전에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늘 변수는 있기에, 내가 실패한 건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순간, 지나간 시간에서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건, 새로운 변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길은 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대해서만은 <나의 노래>보다는 <녹턴>을 지지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그렇다고 <녹턴>의 선택만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희 씨의 노력은 충분히 보였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첫 번째 비례대표로 최혜영 교수가 확정되자 언론사들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 '장애 극복' 최혜영씨”라는 헤드카피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장애라는 단어에는 늘 극복이라는 단어를 쌍으로 붙이는 게 이 사회의 화법이지요. 그래서 저는 <나의 노래>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한 지희 씨에게 부모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과정을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콘서트'라는 것을 기획했기 때문이지요.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김지희 씨의 어머니 이순도 씨가 스토리텔러(storyteller)로

서 자신과 딸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김지희 씨의 기타 연주를 곁들이는 소규모 공연입니다. 이 콘서트가 낱알이 폭발적인 반응을 끌면서 김지희 씨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기업 연수 등 쇄도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러브콜은 흡사 유명 가수의 전국 순회공연을 방불케 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일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악가로서의 도약을 위해 더 치열하게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현재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신중하게 고민했겠지요. 그래서 지희 씨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순간 앙상한 위계질서는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김지희 씨는 장애극복의 영웅이 아니라 풍성한 이야기를 머금은 스토리텔러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초월세계

하지만 <녹턴>의 결말이 선사하는 기쁨만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국가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한다고 하지요. 장애조차도 초월하는 거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저는 <녹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의 스승들은 장애인이라고 봐주지 않았고 그 엄한 스승들의 질타 앞에서 성호 씨는 돌발행동을 하다가도 멈춰섭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자폐인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발달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해왔지만 구성원 모두가 자폐인인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구성원 중 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아도 연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데도 탁구공이 팡팡 튕기듯이 그 자극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게임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늘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녹턴>의 주인공 성호 씨가 혼나고, 관객인 저한테까지 전달되는 그 민망함과 불편함이 너무나 생생해서 조마조마할 때, 성호 씨가 영화 속에서는 처음으로



돌발행동을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는 저조차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 선생님은 “왜 아기처럼 그러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성호 씨는 얼른 자제하며 돌발행동을 멈춥니다. 그 장면은 제게 혼란과 부러움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자폐인들과 겨우 1년을 보내고 있는 저는 저의 자폐인 제자가 힘들어하면 내가 잘못했나 싶어 얼른 엎드려왔습니다. 영화가 뭐라고,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저 분을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에 얼른 눈치를 보고 웃고 달래왔습니다. 그런데 <녹턴>의 선생님은 그 돌발행동 까지도 지적하면서 음악인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 것을 설득합니다. 영화 선생으로서 저는 그 음악 선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1년뿐인 인연이지만 내가 그 분들을 동료로 인정한다면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가며

한국장애인권포럼에서 발간하는 모니터링 리포트에 영화평을 쓰고 싶다는 부탁을 드리니 <녹턴>의 정관조 감독님은 너무 기뻐하며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2019년 9월 DMZ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녹턴>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잘 만들어지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꼭 봐달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이 글을 씁니다.

특히 11년의 시간을 모두 따라간 후 마지막에 만나는 연주 장면은 인생영화로 꼽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세대와 성별, 국경만이 아니라 장애라는 상황 자체도 초월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듯이 독자 여러분들께도 인생영화가 될 것입니다.

(문의 :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070-7596-2401, <녹턴> sunrise18@naver.com)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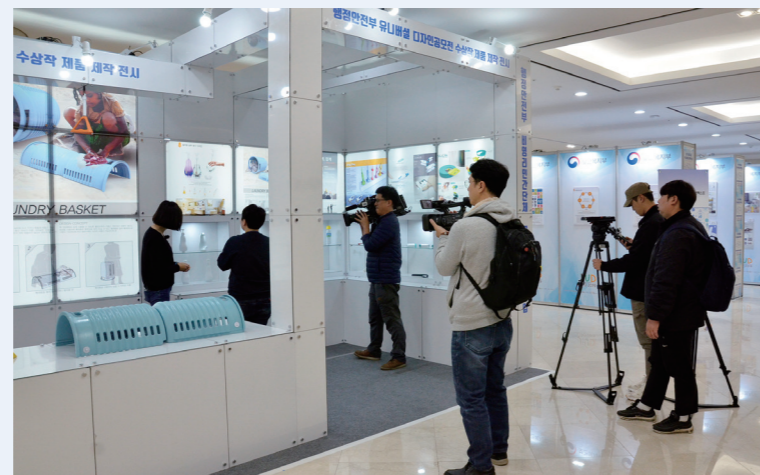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최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가 11월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과 미래복지전략포럼(대표 이정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이번 엑스포는 공동집행위원장 광복철 교수(한국복지대학교)의 브리핑을 통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UD명품도시 제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엑스포를 통해 공동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였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제주지역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문 및 집행위원회는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총 68명으로 구성했으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조직위원회 34명,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인 자문위원회 17명, 조직위 의결사항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 7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의 분과위원회 4명, 운영전반의 실무집행 사무국은 6명으로 추진조직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는 국제학술 세미나, UD-spot 제안, UD 전시 및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전시 및 체험으로 인간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안내 로봇,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차량(휠체어리프트 장착), 보조공학기기, 가전제품, 문구류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과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작품 등의 전시와 노인·장애인·임산부 체험키트를 통한 실생활 체험은 호응이 좋았다. 제주도민들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제주 특정지역을 UD-Spot으로 지정, UD체험거리 실현을 위한 실사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삶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이 공유되고 제주도가 유니버설디자인 선도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물 위의 모든 것, 스코트라

- 수상태양광, 해양레저, 수상플로팅, 수상건설 등 수상 부유구조체 설계, 제작 및 시공 전문기업으로서 안전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4년부터 개발된 멀티룸 플로트는 일반형 플로트보다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플로트 위 수상부유식 건축물 제작과 중장비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

Wherever

백령도에서 제주도, 독도까지 전국 어디든

What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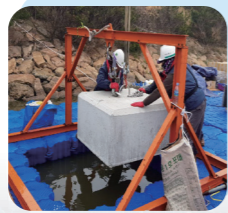
부교, 계류시설을 포함한 물 위의 모든 것을

However

설계, 제조, 시공, 임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립니다.

적용 사례



Everything on the water 물 위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스코트라에서 설계하여 18년도에 완공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18.7MW) 전경입니다.

스코트라, 국내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총 40MW 이상의 수상태양광 수행 경험과 국내 유일의 댐 시공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고 품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 유휴수면 사용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소 부지 한계 극복
- 환경영향평가로 생태보존성 우수성 입증
- 수면냉각효과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

1,200건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수상플로팅 전문기업!



일반형 플로트 및 전 세계 유일의 특허제품인 멀티룸플로트를 활용한 계류장, 마리나시설, 수상레저시설, 부잔교 및 수상태양광 부유구조체 등의 설계·제조·설치·임대 등 수상플로팅 사업 전반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